특허기술 개발과 기업경영

발명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확실하게 인정받고 싶다면 발명 즉시 특허출원 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

김 연 환

· 중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 특허청 상표, 디자인분야 심사관, 소송수행관, 항고심판관 보좌관, 심판관 역임
· 특허사업화지원 및 국유특허관리 사무관, 총괄서기관, 법무담당사무관 등 역임
· 배재대 법무대학원 지재권분야 강사 및 영동대학교 발명특허학과 겸임교수 역임

신제품 개발 무시하면 실패

세계는 이미 지식기반사회로 접어들어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되었다.

이처럼치열한국제경쟁속에서기업이성장할수있는유일한방법은우수한아이디어맨을가능한한많이발굴, 육성하여 특허기술을 개발하는 것뿐이다.

이제 자본과 인력만으로 기업이 발전하던 시대는 지났다. 자본과 인력보다는 산업재산권이 중요시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연구소를 설립하여 보다 앞선 특허기술을 개발하고, 직무발명제도를 채택하여 전사원의 아이디어와 지혜를모을 때계속적인 성장을보장받을 수 있다.

예나 지금이나 기술개발에 소홀한 기업은 퇴보하거나무너진다.

포오드자동차가 그좋은사례라 할 수있다.

‘ 값싸고 견고한 차의 대량생산을 위하여 앞으로 10년간은 이 검은 T형 포오드만을 생산하기로 한다. ’고 발표한 헨리 포오드는, 그때까지 1대의 조립에 12시간 28분 걸리던 것을 콘베이어 시스템의 창안으로 1시간 30분이라는 놀라운시간으로 단축시켰다.

이T형포오드는무려1천5백만대나만들어졌으며, 그 당시 자동차업계에서는‘ 싸고 강하며 스피드 있는 차 ’라는점에서 어떤 차도 이에 따르지못하였다.

그러나 포오드와 같은 사람도 한가지 모르고 지났던 일이있었다. 바로‘ 인간은항시새로움을추구한다 ’는 것이었다.

사실 T형 포오드는 실용적인 면에서는 흠잡을 것이 없었다. 그러나 아무리 실용적이라 해도 똑같은 것을 10년씩이나 계속 사용한다면 싫증이 나게 마련인 것이다.

바로 이점에 재빠르게 눈을 돌린 GM은 그야말로 대성공을 거두었다.

GM은‘ 이제 대중은 포오드에 싫증이 났다. 비싸더라도 새롭고 보기좋은 차를 만들어내자 ’는 슬로건을 내걸고 신제품개발에 나섰다.‘ 시보레 ’였다.

새로운 것에 굶주리던 사람들은 시보레 쪽으로 몰려들었다. 포오드의 매상은 급속도로떨어졌다.

당시 최대기업이었던 포오드였지만, 이런 실수 하나로 해서 결국 파산 일보직전까지 이르게 되었고, 포오

발명에 있어 2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패배자와 승리자만 있는 것이다. 아차상이나 애석상 따위를 바라는 사람은 평생 성공의 기회를 잡지 못한다.
특허출원 서류를 들고 발바닥에서 불이 나도록 뛰어라.
천당으로 갈것인가, 지옥으로 갈 것인가는 바로 자신의 행동에 달려있는 것이다.

드는 모든 책임을지고사장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포오드자동차가 뒷걸음질을 하는 동안 각 자동차 메이커들은신제품개발에박차를가하여캐디락, 크라이슬러, 패카아드 등을 속속 시장에 선보여 하나같이 대성공을거두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손자인 포오드 2세가 사장에 취임했고, 링컨과 같은 신제품을 속속 시장에 선보여 또다시옛명성을 되찾게 되었던 것이다.

아이디어와 산업재산권

기업성장을 위한 요소로서는 여러 가지를 들수 있으나무엇보다도아이디어개발과, 개발된아이디어를산업재산권으로 권리화하여나가는 것이다.

미국의 제록스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제록스는 1960년대만해도미국의 사무용 복사기 시장에서 미미한 존재였고, 매출도 미미했다. 그런데 1963년에는 시장 점유율이 수위로 뛰어 올랐다. 또 1966년에는 4억불(당시 금액)이 넘는 매출액으로서 시장 점유률이 60%로 성장했다.

이 같은 성장으로 1967년에는 종업원 1인당 매출액과 이익이 각각 3만불과4천불이라는 경이적인기록을 세웠다. 이는거대기업인ICI와비교하면매출면에서2배, 이익면에서는 3배에 이르는 실적이었다. 참고로 1967년 당시 미국의 국민 1인당 GNP를 살펴보면 4천불이다.

그런데 제록스의 이 같은 급격한 성장과 높은 이익창출의 비결은 바로 아이디어 개발을 통한 산업재산권의 확보에 있었다. 당시 제록스 복사기는 그 본체에만도 2백건이 넘는 산업재산권으로 무장되어 있으며, 그 주변 기술과 부품의 산업재산권까지 합하여 3백건에 이르렀다. 한마디로 아이디어로 똘똘 뭉쳐진 발명품의 대명사였다.

이 때문에 컴퓨터의 세계 최정상 기업인 IBM이 그 당시4년이라는세월을소비하여복사기를개발했으나 발표와 동시에 제록스로부터 특허권 침해로 피소되는 곤욕을 치러야만했다.

현장기술의 위력

이와 같이 산업재산권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아이디어의 개발이 선행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은 대부분 최근 들어 성장이 둔화되고 있으며, 특히 시장개방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우리 상품의 국제경쟁력 약화에서 오는 것이다.

이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자원과 노임등에서비교우위를 찾기힘들게된 이상 아이디어와 신기술개발에서의 비교우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동안 소홀했던 우리의 실정까지 감안하여 특히 경영자는 산업재산권 확보를 위한 아이디어 개발을 위해 이 분야의 과감한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예나지금이나 인간은분야와품목에따라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1-2년이면 싫증을 느낀다고 한다.

따라서 이 기간 안에 신제품을 내놓지 못하면 그 회

사는 무너진다고들말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기술이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기술개발은 대부분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기업이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도연구소는자체연구못지않게현장에서발생한문제해결에치중하고 있다.

문제해결, 바로 그것이 무엇보다 값진 발명이기 때문이다.

현장기술의 위력은 실로 대단했다. 이는 오늘의 발명사가확실하게 증명해주고 있다.

1966년 영국에서 열린 국제오토바이 경주대회에서 1위에서 5위까지를 휩쓸며 오토바이 신화를 창조한 혼다의 오토바이 개량발명도 현장에서 발견된 문제를 해결했을따름이었다.

직무발명의 활성화

이와 같은 사례는 수없이 많다. 따라서 현장기술의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없을 것이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현장 기술을 매우 중요시하고있다. 소위 직무발명제도가 그것이다.

직무발명제도는 ▲독점 배타적 권리 확보를 통한 기술개발 투자의 확대 ▲기술혁신 ▲기업의 성장 ▲국제경쟁력 제고 등 네 가지 요인들에 의해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독점배타적권리확보를통한기술개발투자의확대는종업원이직무에관한발명을완성하여특허권을획득하였을경우기업은무상으로특허받은기술을실시할수있을뿐만아니라특허받을수있는권리또는특허권을 승계 취득할 수도 있으므로 타인의 기술모방이 배제되는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로인해 기술개발투자의 확대를 유도할수 있다.

기술혁신이란 창의적인 기업가가 불확실성과 위험성을 가지고 이윤을 추구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의 결과를 실용화시키는 과정으로 종업원에게는 인센티브의 제공으로 발명을 촉진시키고, 기업은 개발된 기술을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기업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게된다.

직무발명에 의한 기업의 성장은 종업원에게 발명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으로 이루어지고 인센티브 제공은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며, 기업은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 확보, 기술축적 및 기술의 상호 공유를 통한 기업의 성장을 유도하여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지속적인 발명과 기술혁신으로 산업재산권 출원 세계 4위, 세계 첨단기술의 각축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특허출원 순위도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어 외형적으로는 이미 세계 지식재산 4강에 진입하였다.

이제, 우리는 질적인 측면에서도 명실상부한 지식재산 4강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혁신으로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해야 하며, 개발된 기술들은 신속하게 권리로 보호되고 사업화로 이어져야할 것이다.

특허출원은 최대한 서둘러야

하나의 발명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발명가가 쏟는 열정과 땀방울은 그 정도를 측정할 수 없다. 때로는 인생의 반평생을 한 가지 과제에 바치거나, 전재산을 탕진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에 발명품에 대한 일정한 권리는 발명가 자신에게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존중해줄 의무가있는 것이다.

만약, 십여년의 긴 시간과 수십 억이라는 막대한 투

자를 거쳐 완성된 발명품을, 다른 사람이 쉽게 도용하도록 방치해 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아무런 이익도 보장받을 수 없는데 누가 발 벗고 나서서 새로운 아이디어를개척하려 하겠는가.

그러나 발명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확실하게 인정받고싶다면, 발명즉시특허출원 절차를밟는것이 좋다.

아무리 훌륭한 발명이라 할지라도 특허출원을 거치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단 아이디어를 완성한 후에는 빨리 빨리 움직이는 것이 상책이다. 발명의 과정에는 끈기를 지닌 마라톤 선수의 자질을 갖추어야 하지만, 특허 출원의 과정에선 칼 루이스와 비슷한 순발력을 발휘해야 한다.

자신의 아이디어가 나만이 간직한 전혀 새롭고 독창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 또한 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정을 잊어서는 안된다. 우연히연구과제가중복될 수도있는 것이다. 아차 방심하는 사이, 오랜 세월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명심하자.

실제로 발명사의 숨겨진 일화에는 특허출원에 얽힌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19세기 초반에 갈고리를 발명한 한 인부는 특허출원을 위해 도시로 가는 도중에 아이디어를 도둑맞았다.

그는 낯선 지방에서만난 사람과 술친구를하다가별생각없이자신의아이디어를자랑해버렸다. 하루만지나면 부자가된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저녁, 그가 잠든 사이에 함께 술을 마시던 낯선 사내는 슬그머니 사라져 버렸다. 물론 사내의 품에는 그가 소중히 지키던 특허출원 서류가 숨겨져 있었다.

다음날아침, 자신의특허출원서류가없어진사실을 깨닫고부랴부랴도시로향했으나헛일이었다. 그가특허청에 도착했을 땐, 이미 누군가에 의해 특허출원이 끝난 상태였다.

하룻밤의 실수로 어이없게도 수천만 달러의 이익을 날려버린 것이다.

유명한 독일의 사례를 하나 더 소개한다.

19세기후반독일은유럽에있어서한낱농업국에지나지 않았다. 실업자는 날로 늘어가는 상황에서 한 남루한 차림의 중년 남자가 애니링소다회사를 찾아와 사장과의 면담을청했다.

“ 사장님, 이 회사는 곤경에 빠졌습니다. 해결할 사람은저뿐입니다. 저를 채용해 주십시오. ”

“ 곤경이라니?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요? ”

사장은 버럭화를냈다.

“ 사장님, 지금 이 회사는 극비리에 합성염료 생산을 준비하고 있지요? 지금 영국의 빠킹 박사가 이와 같은 것을 개발하여 출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회사가 영국을상대로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

“ 좋소. 당신을 채용하겠소. 방법을 말해 보시오. ”

“ 간단합니다. 그들보다 먼저 영국의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하는 겁니다. ”

사장은즉석에서중년남자를사원으로채용하고, 그로하여금 특허를 출원하도록 지시했다.

그 결과 이 회사는 영국 특허청으로 부터 제1936호의특허권을 받았다.

그 후 기록에 따르면 이 독일의 중년 남자의 출원이 영국측 빠킹 박사의출원보다 하루가빠른 것이었다.

영국 제일의 박사였지만 단 하루가 늦어짐으로 기술은 일찍 개발해 놓고도 특허권을 독일의 중년 남자에게 빼앗긴 것이다. 이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일이다.

이 일은 세계 발명사상 가장 유명한“ 특허가 기술을 지배한 특허전쟁 ”의 기록에 남은 뒷이야기인데, 우리나라에도 이 같은 사례가수없이 많다.

발명에 있어 2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패배자와 승리자만있는것이다. 아차상이나애석상따위를바라는사람은 평생 성공의 기회를 잡지 못한다.

특허출원 서류를 들고 발바닥에서 불이 나도록 뛰어라. 천당으로 갈것인가, 지옥으로 갈 것인가는 바로 자신의 행동에 달려있는 것이다.

발 • 특2007. 3